

INTERVIEW AT KOBA SHOW 2018

HARMAN

***Ramesh
Jayaraman***

Vice President & General Manager, Asia-Pacific, HARMAN PROFESSIONAL SOLUTION

HARMAN, 폭넓은 제품군으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다

Q/MIX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HARMAN의 Asia-Pacific 지역 부사장을 맡고 있는 Ramesh Jayaraman 입니다. Asia-Pacific 지역은 세계에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곳으로 HARMAN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JBL VTX A12은 뛰어난 하드웨어로 인한 매우 쉬운 사용법과 놀라운 성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재 Asia-Pacific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Asia-Pacific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이 꽤 좋습니다. 제품 사이클이 긴 대형 투어링 스피커 분야이지만 많은 팀과 뮤지션들이 테크니컬 라이더 목록에 VTX A12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특유의 유연성 때문에 선택을 고려하는 곳도 많습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 시장에서 특히 반응이 대단합니다. 필리핀에서 JBL의 점유율은 70%에 이릅니다. 또한 VTX-A라인을 더욱 확충할 계획으로, 몇 달 안에 8인치급의 신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VLA Compact 시리즈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VTX A12보다는 한층 작은 모델로 인스톨 환경에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점은 IP55의 방수방진 등급으로 옥외 설치 또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100° 커버리지의 VLA-C2100과 65° 커버리지의 VLA-C265가 있습니다. 둘 다 듀얼 10인치급 라인어레이 유닛이며, 그 외에 VLA-C125S 듀얼 15인치급 서브우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HARMAN의 연구부서는 기초음향에 관한 연구로도 명성이 높은데요, 그 연구결과도 프로페셔널 제품군에 반영이 되나요?

HARMAN의 연구소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결과는 역시 HARMAN-Target 일 텐데요, 당연히 그 연구결과는 컨슈머 및 하이파이 제품군 뿐 아니라 프로페셔널 제품군에도 반영됩니다. 사실 프로페셔널 제품에 더욱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부서를 설명드리자면,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HARMAN의 일원인 Martin Lighting과 관련되어 있는 조명,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와 전자분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음향에 관한 것입니다. 조명 연구소는 덴마크에, 네트워크 및 전자 연구소는 미국 텍사스주의 Dallas에, 음향 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Northridg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세가 되고 있는 솔루션 단위의 제품을 개발할 때 이 세 연구소의 협업이 빛을 발하죠.



(주)테크데이터 김중태 대표이사(우)와 Ramesh Jayaraman HARMAN APAC 부사장(좌)

Ui24r은 매우 작은 크기에 놀라운 기능을 담아낸 포터블 믹서인데요, 글로벌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놀랄 정도로 반응이 엄청납니다. 첫 런칭에만 컨테이너 두 개 분량이 필요했을 정도니까요. Ui24r을 보시면 하나의 제품이긴 하지만 거기엔 여러 브랜드의 협업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히 HARMAN이 자랑하는 Connected PA 시스템은 JBL PRX800W 스피커, AKG P5i, MDAi 어댑터, dbx Di1 DI 박스 등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프리셋이 리콜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뮤지션이 자주 바뀌는 클럽에서 각광받는데요, 별도의 셋팅이나 리콜, 혹은 복잡한 셋업이 필요없이 뮤지션은 자신의 악기를 들고 올라가 바로 연주하면 됩니다. 컴퓨터 없이 USB메모리만으로도 멀티 트랙 레코딩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입니다.

보통 작은 제품은 퀄리티가 떨어지기 일쑤인데요, Ui24r은 Studer설계의 마이크 프리앰프를 채용하는 등 품질에도 신경쓰면이 돌보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퀄리티와 크기는 원래 반비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크기에도 좋은 퀄리티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Soundcraft의 제품 라인업을 보면 Notepad 시리즈나 Signature 시리즈처럼 처음 음악을 시작하는 뮤지션에게 적합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뮤지션 지망생들이 성장해 밴드를 꾸려서 남들 앞에서 연주할 때가 되면 Ui시리즈와 같이 좀 더 강력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겠죠. 좀 더 나중에는 Vi시리즈도 사용하게 될테구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작은 제품이라고 해도 퀄리티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실제로 제 아들의 경우 기타를 연주하고 뮤지션이 되길 원하죠. 흥미로운 점은, 저희 제품으로 시작한 뮤지션의 경우 성공 후에도 저희 제품을 선호하며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우 작은 사이즈의 Notepad는 레코딩을 위한 모든 기능 뿐 아니라 좋은 음질과 소프트웨어 툴까지 제공합니다. 혼자서 음악을 녹음하거나 Youtube 등에 업로드하기 적합하죠. 이에 만족한 뮤지션들은 이제 좀 더 강력한 Ui시리즈를 사용하며 계속 좋은 인상을 받기 마련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최근 표준 IP 네트워크 기반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솔루션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AMX에서도 대응하는 제품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SVSI시리즈가 바로 그것인데요, AMX는 네트워크 AV분야에서만 10년 이상, 영상 전송으로만 보면 3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SVSI시리즈는 오랜 경험치의 산물로 비용과 규모에 따라 N1000, N2000, N2400, N3000 등 여러 제품군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구성을 쉽게 도와주는 프로세서는 물론 네트워크 영상 레코더까지 폭넓은 제품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없으며 Full-HD는 물론 4k, H.264에 대응할 수도 있죠. 이는 실시간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여러 곳에 전송해야 하는 곳에 적합한데, 저희는 이것이 특히 설교의 전송이 중요한 교회 환경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해 각 실에 레이턴시 및 품질 손실 없이 음향과 영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특성은 라이브 이벤트에서도 유용하죠. 최근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라이브 환경은 레이턴시 없는 영상 전송을 요구하거든요. 보안성 면에서는 업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및 군기관에서 인증까지 받았습니. 이런 특징들로 한국의 상업 시설은 물론 교회, 라이브 이벤트, 정부 시설, 기업 환경 모두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BSS에서 회의용 프로세서도 내놓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완전한 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팅룸 및 회의용 시스템은 AMX의 전문분야죠. AMX가 HARMAN과 한 식구가 되면서 프로세서 분야에 특화된 BSS에서 관련 제품이 나온 것이죠. 이를 통해 BSS의 프로세서와 AMX의 회의용 시스템들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AMX의 ACENDO 시리즈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원격 회의 및 협업 시스템인데 AKG의 마이크 기술, JBL의 스피커 기술 등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죠.

최근 인스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HARMAN의 전략은?

HARMAN의 브랜드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오랜기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의 시대입니다. 저희는 조명, 영상, 음향을 비롯한 모든 전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력과 호환성을 가진 솔루션들이 속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 (주)테크데이타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소통이 원활하며, 협업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저희는 잘 팔릴만한 좋은 제품과 솔루션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데요, (주)테크데이는 저희가 저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들은 시장의 고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기술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는 좋은 관계에 기반하고 있죠. 말하자면 (주)테크데이는 절대적으로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